

[단독]동방신기 3인, 12월 극비리 국내 팬미팅 추진중

박미애 · 입력 2009. 11. 26. 11:49 · 수정 2009. 11. 26. 11:50



▲ '2009 MAMA' 출연 당시 시아준수, 영웅재중, 믹키유천

[이데일리 SPN 박미애기자]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(이하 SM)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, 믹키유천, 시아준수가 극비리에 국내 팬미팅을 추진중이다.한 측근에 따르면 이들 3인은 12월 중 서울의 모처에서 오래만에 국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. 이번 자리가 다

섯 명 전원이 참석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오랜만의 국내 활동이라는 점에서 팬들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.

이들 3인이 지난 7월 SM과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에 나서며 동방신기의 국내 활동은 잠정 중단됐다. 해외 활동은 계속될 것으로 알려진 데 반해 국내 활동은 중단돼 동방신기를 아시아 스타로 키운 고국 팬들의 아쉬움은 컸다.

뿐만 아니라 이번 팬미팅은 이들 3인의 두 번째 독자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. 이들 3인은 지난 21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'2009 MAMA'(Mnet Asian Music Awards)에 참석하며 독자 활동을 개시했다.

이들 3인의 독자 활동이 가능해진 건 이들이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기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승소했기 때문. 지난 10월 법원은 "본안 소송 판결까지 SM이 신청인들(동방신기 3인)의 의사에 반하여 공연 등 연예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청인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"는 판결을 내렸다.

이들 3인은 '2009 MAMA' 출연을 확정하며 "지금까지 해외 활동에 주력하는 동안 기다려준 국내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다"고 참석 이유를 밝힌 바 있다. 이번 팬미팅 개최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.

한편 동방신기는 26일 니혼TV '2009 베스트 히트 가요제'와 내달 31일 NHK '홍백가합전'에 출연할 예정이다.

▶ 관련기사 ◀

[☞ SM "동방3인 공연 확인서는 위조, 책임 물을 것" 정면대응 시사](#)

[☞ SM, "멤버 3인이 동방신기로 상 받을 대표권 없다"](#)

[☞ 동방신기, 2009 MAMA 베스트 아시안 스타상...멤버 3인만 참석](#)

[☞ 日 언론, "동방신기 내년 복귀 어려워" 일제 보도](#)

[☞ SM, "中공연 무산, 동방 3인 입장돌변 탓" 재반박](#)

▶ HOT스타 연예화보 - 모바일 SPN1008 < 1008+nate/show/ez-i > <저작권자 © 함께 즐기는 엔터테인먼트 포털 이데일리 SPN >
이데일리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